

# 물고기 이름 유래담의 내포적 의미 고찰

## -인물 관련 유래담을 대상으로-

박종오\*

- I. 머리말
- II. 인물 관련 물고기 이름 유래
- III. 물고기 이름에 내포된 의미
- IV. 맺음말

### 국문요약

세상 만물에는 그에 알맞은 이름이 존재한다. 물고기도 각기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물고기 이름은 한자로 기록되어 전해져 왔다. 한자는 한국어 표기에 적합한 문자가 아니기에 어원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물고기 이름이 시작된 유래를 보여주는 설화가 있어 주목된다.

본 글에서는 특정 인물의 성씨나 이름에서 유래된 물고기들의 이름 유래담과 특정 인물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본래의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을 얻게 된 물고기 이름 유래담을 살펴보았다. 특정 인물의 성씨나 이름에서 유래된 유래담은 이름 없는 물고기에 이름을 붙여주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는 물고기가 잘 잡히는 지역과 물고기와 관련된 특정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 이 인물의 이름에 근거하여 물고기의 이름이 유래된다.

특정 인물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본래의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을 얻게 된 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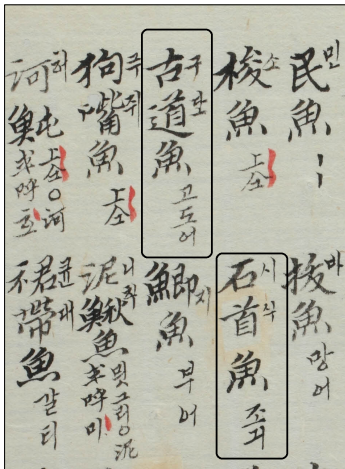
\* 목포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강사.

래담에서는 물고기와 관련된 인물과 그 인물이 처한 상황이 제시된다. 그러면서 물고기와 관련된 사건들이 나열되고, 기존 이름에 새로운 이름이 생겨나는 과정이 설명된다.

이러한 유래담에서 물고기와 관련된 특정 지역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정 지역이 강조되거나 특정 지역을 강조함으로써 그 지역의 특산품 혹은 토속품(음식)으로 인식되거나 인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 즉, 이명(異名)이 붙여줌으로써 나름대로의 의미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설화를 전승하는 특정 지역 전승집단들의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여러 지역에서 산출되는 물고기가 특정 지역의 특산품으로 인식되기 위한 일정한 의미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또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화 되는 것이다.

주제어 : 물고기 이름, 유래담, 특정 인물, 특정 지역, 의미화.

## I. 머리말



<『역어유해(譯語類解)』에 표기된 물고기 이름(부분)>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sup>1)</sup>고 하였듯이 세상 만물에는 그에 알맞은 이름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바다에 사는 물고기 또한 각기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까닭에 물고기 이름의 어원을 밝히려는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2006년도에 국립수산과학원이 『한국어도보(韓國魚圖譜)』에 기록되어 있는 약 1,200여종의 어류 이름을 분류한 결과 ‘갈치’, ‘꽂치’처럼 ‘~치’로 끝나는 물고기 이름이 18%로 가장 많

1) 『明心寶鑑』,省心篇, “天不生無祿之人,地不長無名之草.”

있고, ‘고등어’, ‘숭어’처럼 ‘~어’로 끝나는 물고기 이름이 약 16%를 차지했다고 한다. 그런데, 물고기 이름이 ‘치’ 못지않게 ‘어’가 많은 것은 한자문화권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주 언급해야 할 필요성이 많은 고기들은 순 우리말 이름 대신 한자 이름을 붙인 까닭이다.<sup>2)</sup>

바닷물고기 이름 어원을 밝히기는 쉬운 일이 아닌데 한자로 기록되어 전해 오는 것이기에 본디 고유 명칭을 찾기도 어렵다. 하나의 예로 1690년에 간행된 『역어유해(譯語類解)』에는 고등어를 한자로 ‘古道魚’, 한글로 ‘고도어’<sup>3)</sup>라 표기하고 있다. 조기는 ‘石首魚’, ‘조괴’로 표기하는 등 한자 표기와 한글 표기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한국어가 전면적으로 표기되기 시작한 것은 훈민정음이 창제된 뒤의 일이다. 그 이전에는 한자(漢字)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한국어 표기에 적합한 문자가 아니었다. 그런 중에도 고대 삼국에서는 인명, 지명을 비롯한 고유어 표기 방법이 고안(考案)되었고, 신라에서는 향가의 표기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나마 이들 고대 자료가 많이 전해져 내려왔다면 그때의 언어의 모습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었을 터이지만<sup>4)</sup>,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적은 일부분뿐이다.

지금까지 물고기 이름 어원을 밝히는 연구는 주로 어휘를 분류하고 계통을 밝히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sup>5)</sup> 그런데 어휘 중심이 아닌 특정 물고기를 중심으로 하여 그 어원 혹은 내력을 밝히려는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 명태의 명칭 기원과 전파를 살핀 김경혜의 연구와 임연수어, 도루묵, 명태의 한자표기와 설화에 관해 고증한 김양섭의 연구가 그것이다. 김경혜는

2) <‘치’와 ‘어’-물고기 이름의 유래>, 『SBSNEWS』, 2009년 11월 20일자 기사 참조([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673839](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673839), 2017년 8월 25일 접속).

3) ‘한자 ‘어’(魚)는 그 음이 오늘날에는 ‘어’이지만 15세기에는 ‘어’, 즉 ‘옛어음’(◦)에 ‘ㄱ’이 연결된 음이었다. 그래서 ‘고도어’는 ‘고동어’로 발음된다(홍윤표, 「‘가물치’와 ‘붕어’의 어원」, 『섬표, 마침표』 12, 국립국어원, 2006년 9월).

4) 이기문, 「한국어 어원 연구의 회고와 전망」, 『대한민국학술원논문집』, 47(1), 대한민국 학술원, 2008, 52-53쪽.

5) 물고기 이름과 관련된 어휘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장태진, 「물고기 이름의 어휘 연구」, 『한글』 143, 한글학회, 1969; 노재민, 「물고기 이름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윤정옥, 「우리나라 물고기 이름의 형태·의미 구조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명태의 출연시기, 명칭의 기원과 발달에 관해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명태의 출현을 최소 조선초기로 설정하고, 조선 중기에 진상품의 위치에 오른 것으로 보았다. 또한 무태어(無泰魚)를 명태의 선칭(先稱)으로 보고 있으며, 수요가 늘면서 명태라는 명칭이 보편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6)</sup> 김양섭은 임연수어, 도루묵, 명태의 명칭의 변화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임연수어는 연승어업의 모습을 담은 한자어에서 명칭이 유래되었고, 도루묵은 그 설화의 내용을 살펴볼 때 태조 이성계가 설화의 주인공임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명태의 명칭이 ‘기름을 이용해 불을 밝힌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명 태조 주원장의 묘호 ‘明 太祖’와 한자 표기가 같아 조선 전기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7)</sup>

이처럼 물고기의 이름을 분류하고 어휘를 분석하는 작업과 함께 명칭 유래에 관한 설화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필자가 관심을 갖는 부분도 물고기 이름이 생겨나게 된 유래담이다. 유래담의 내용이 역사적으로 틀렸거나 상황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별 문제는 없다. 유래담의 사실 여부보다는 전승의 지속성에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유래담에는 물고기 이름이 생겨나게 된 내력과 함께 설화 전승집단의 철학적 사유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유래담에 내포된 의미를 찾아보는 것은 설화가 지속적으로 전승되는 원초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특정 인물<sup>8)</sup>과 관련 있는 유래담은 명명(命名)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화 전승 집단 내에서 전승의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만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물과 관련 있는 물고기 이름 유래담 여섯 편<sup>9)</sup>을 살펴보고자 한다. 잘 알려진 ‘임연수어’, ‘명태’, ‘도루묵’, ‘굴비’ 유래담과 함께

6) 김경혜, 「명태 명칭의 기원과 전파」, 『조선시대 해양환경과 명태』, 부경대학교해양문화연구소, 국학자료원, 2009.

7) 김양섭, 「임연수어·도루묵·명태의 한자표기와 설화에 대한 고증」, 『民俗學研究』 38, 국립민속박물관, 2016.

8) 여기에서 말하는 특정 인물이란 ‘물고기 이름에 자신의 이름이 사용된 사람’이나 ‘물고기 이름을 지어주는데 관여된 사람’을 뜻한다.

9) 필자가 찾아본 설화 중에서 인물과 관련 있는 물고기 이름 유래담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유래담이 있을 수 있고, 연구자의 견해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 설화들도 있기 때문에 확정적 의미를 지닌 편수는 아니다.

특정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균평선이’, ‘을문이 고기’ 유래담이 그것이다. 이 이야기들은 나름대로 이름 유래에 관한 논리적 설명이 있고, 지속적으로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다. 이 설화들을 대상으로 인물과 관련된 물고기 이름 명명 방식을 살펴보고, 설화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인물 관련 물고기 이름 유래

### 1. 특정 인물의 이름과 관련된 명칭(名稱)

물고기 이름 중에는 특정 인물의 성씨(姓氏) 혹은 이름 - 성과 이름을 모두 합쳐 이름이라고도 한다 - 을 따서 지어진 것들이 있다. ‘임연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임연수어’, ‘평선’이라는 여성의 이름을 딴 ‘균평선이’가 그것이다. 이와 함께 특정 물고기를 잡은 어부의 성씨를 따서 붙여진 이름 ‘명태’도 있다. 이 장에서는 이처럼 특정 인물의 성씨나 이름에서 유래된 물고기들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임연수어(林延壽魚)

임연수어는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주로 잡히는데, ‘찾치(함경남도)’, ‘새치(강원도 명주)’, ‘가르쟁이(치어; 강원도 강릉)’ 등으로 불리는 물고기이다. 모양이 쥐노래미와 비슷하나 꼬리자루가 가늘고 꼬리지느러미가 깊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것이 다르다.<sup>10)</sup> 평소에는 수심 100~200m 암초지대에 서식하지만, 산란기(9월~이듬해 2월)에는 해수와 담수가 뒤섞이는 기수지역으로 떠 지어 몰려와서 먹이사냥을 한다. 강원도 영북지역에서는 임연수어가 기수지역으로 몰려오는 2~4월경에 주로 어획한다. 이때 수심 20~30m의 연안에서 자망(刺網; 물속에 옆으로 쳐놓아 물고기가 지나가다가 그물코에 걸리도록 하는 그물)으로 어획한 임연수어를 ‘가리쟁이’ 또는 ‘가르쟁이’라고 부른다. 또한 이 지역 어부들은 임연수어를 ‘새치’, 청록색 몸빛을 띠는 어린

10) 정문기, 『韓國魚圖譜』, 일지사, 1977, 522쪽.

임연수어를 ‘청새치’라고도 부른다. 즉 ‘새치’라는 명칭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물고기’로 이해된다.<sup>11)</sup>

중종 25년(1530)에 증보·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함경도 토산 조<sup>12)</sup>와 영조 33년~41년(1757~1765)에 편찬된 『여지도서』 함경도 물산 조<sup>13)</sup>에 각각 ‘臨淵水魚’라는 기록이 보인다. 서유구(徐有渠, 1764~1845)가 지은 『난호어목지』에는 물고기 이름 유래담과 함께 ‘林延壽魚’라는 기록이 등장하게 된다.

임연수어(林延壽魚) 【임연수어】 관북의 먼 바다에서 난다. 배가 불룩하고 몸이 축급하다. 등은 푸르고 배는 희다. 비늘이 잘고 눈도 작아 황복과 상당히 비슷하지만 머리가 크고 양쪽의 뺨이 납작하면서 넓다. 큰 것은 1자 남짓이고 작은 것도 5~6치가량 된다. 예전에 임연수(林延壽)란 사람이 이 물고기를 잘 낚았다. 그래서 현지사람들이 그 이름을 따서 불렀다. 『길주지』에는 임연수어(臨淵水魚)라고 되어 있는데 발음이 비슷해 와전된 것이다.<sup>14)</sup>(밑줄 필자)

‘임연수어란 물고기는 함경북도에서 주로 잡히는데, 임연수(林延壽)라는 사람이 이 물고기를 잘 낚았기 때문에 현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물고기에 붙여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즉, 물고기를 잘 잡은 사람의 이름에서 물고기 이름이 유래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김양섭은 ‘林延壽魚’를 ‘낚시마다 줄줄이 낚여서 올라오는 연승어업(延繩漁業)의 모습을 담아낸 한자표기’라고 하였다. 즉, 임연수어 잡이에 연승어법이 도입된 이후 설화의 창작 소재로 활용되었다고 보고 있다.<sup>15)</sup> 김양섭의 견

11) 김양섭, 위의 논문, 8~9쪽.

12) 『新增東國輿地勝覽』, 咸鏡道, 吉城縣, 土產, ‘사, 삼, 철 다신포에서 산출된다. …<중략>… 삼치, 방어, 임연수어 …<후략>…’, ‘土產 絲·麻·鐵 出多信浦 …… 麻魚, 魴魚, 臨淵水魚 …….’

13) 『輿地圖書』, 咸鏡道(關北邑誌), 咸鏡北道吉州牧邑誌, 物產, ‘사, 삼, 사철 …<중략>… 삼치, 방어, 임연수어 …<후략>…’, ‘物產 絲 麻 沙鐵 …… 麻魚 魴魚 臨淵水魚 …….’

14) 『蘭湖漁牧志』, 魚名攷, 海魚, ‘林延壽魚 【임연수어】 出關北海洋. 肚飽身佻, 背青腹白. 鱗細目小, 頗似河豚, 而頭大兩頰扁廣. 大者尺許, 小或五六寸. 昔有林延壽者, 善釣此魚, 土人因以名之. 吉州志 作臨淵水魚, 音近而訛矣.’

15) 김양섭, 앞의 논문, 12~13쪽 참조.

해처럼 연승어업을 한자로 기록한 것이 후에 사람 이름으로 와전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설화 내용의 옳고 그름 보다는 현지 사람들이 특정 인물이 잘 잡은 고기이기 때문에 붙인 이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보고자 한다.

서유구가 『난호어목지』에 기록을 할 때 현지인들이 부르는 물고기 발음을 주목했다는 점은 중요하다. 한자어 표기는 현지인들이 발음하는 물고기 이름을 표기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난호어목지』의 기록은 실제 이름이 유래된 설화가 그 지역에 전승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리라 본다. 따라서 ‘임연수어’라는 물고기 이름은 특정 인물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2) 군평선이

임연수어와 비슷하게 사람 이름에서 이름이 비롯된 물고기가 있으니 바로 ‘군평선이’이다. 군평선이는 온대성 어종으로 우리나라 중부이남 연해에 분포하는데, 여수, 순천 등지에서는 ‘군평선이’, 벌교에서는 ‘엘게빚등어리’, 고흥 등지에서는 ‘쌩쌩이’, 통영에서는 ‘꾸돔’ 등으로 불린다.<sup>16)</sup> 산란기는 4~8월이며 이 시기가 되면 연안으로 몰려온다. 성장 속도가 늦은 편으로 3년이 지나야 10~11cm 정도 자란다. 봄이면 중국 및 우리나라 남서연안으로 이동하여 얕은 바다에서 여름을 보내고, 가을이면 남쪽으로 이동한다.<sup>17)</sup>

군평선이는 여수 지방에서 알아주는 생선으로 ‘금풍생이’라고도 부르며, 굴비보다 더 값지게 친다. 이러한 군평선이의 명칭 유래가 여수 지역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직전 전라좌수사로 여수에 부임했을 때다. 어느 날 아침에 처음 보는 생선요리가 식탁에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처음 맛본 생선의 맛이 너무 좋아 이순신 장군이 놀라며 시중드는 관기에게 이름을 물었는데 관기는 물론이고 아무도 이 생선의 정확한 이름을 몰랐다고 한다. 이순신 장군은 시중을 드는 관기의 이름이 ‘구평선’인지라 “그럼 이제부터 ‘평선이’라 불러라” 해서 ‘평선이’가 됐

16) 정문기, 위의 책, 345쪽.

17) 《수산생명자원연구센터》([http://www.nifs.go.kr/frcenter/species/?\\_p=species\\_view&mf\\_tax\\_id=MF0009845](http://www.nifs.go.kr/frcenter/species/?_p=species_view&mf_tax_id=MF0009845), 2017년 8월 25일 접속).

는데, 그 이후로 구워서 먹으면 특히 맛이 좋았기에 평선이 앞에 군(구운)자가 붙기 시작하면서 ‘군-평선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sup>18)</sup>(밑줄 필자)

이순신 장군의 일화처럼 전해지는 이 이야기는 군평선이라는 물고기 이름의 유래를 담고 있다. 이름 없는 생선에 ‘평선’이라는 기생의 이름을 붙여주어 ‘평선이’라 불렀다는 내용이다. 그러다가 이 물고기는 구운 것이 더 맛있다는 의미로 앞에 ‘구운(군)’을 붙여 ‘군평선이’가 되었다. ‘불에 구운 평선’이라는 뜻인데, 특정 인물의 이름이 물고기의 이름으로 붙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여수지역에서는 ‘군평선이’를 ‘쌔서방고기’라고도 부른다. 이는 군평선이가 얼마나 맛이 있든지 ‘본 남편에게는 아까워서 안 주고 쌔서방에게만 몰래 차려주는 고기’라는 의미이다. 실제 『한국어도보』에 보면 ‘여수근해에서 잡히는 군평선이가 도미류 중 가장 맛이 좋다.’<sup>19)</sup>는 기록이 있어 여수지역에서 이 물고기에 대한 소비가 많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3) 명태(明太)

‘임연수어’나 ‘군평선이’가 사람 이름에서 유래 된 것이라면, 사람의 성(姓)씨에서 이름이 유래 된 물고기가 있는데, ‘명태’가 바로 그것이다. 명태는 우리나라 함경도, 강원도 및 경상북도 연안에서 잡히는 한류성 어종으로, ‘북어(강원도)’, ‘동태(동해)’, ‘선태(동해)’, ‘망태(함남)’, ‘간태(동해)’, ‘강태(동해)’ 등 다양하게 불린다. 이러한 명칭들은 명태의 상태를 보고 붙여진 이름들이다. 예를 들면 상인들이 신선한 명태를 가리킬 때 ‘선태(鮮太)’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조태(釣太)는 낚시로 잡은 명태를 말하며, 11월경에 강원도 간성 연안에서 잡힌 명태를 간태(杆太)라고 부른다. 평소에는 수심 200~500m의 해저 근처에 서식하지만, 산란기인 12월에서 3월 사이에는 50~100m 깊이의 모래와 진흙이 섞인 지대에서 산란한다. 한 마리의 산란 수는 25~40만 마리고, 수정 후 10일 만에 부화한다.<sup>20)</sup>

18) ‘군평선이&자리돔’, <수산물이야기>, 《어업 in 수협》, 2014. 08. 21 기사(<http://www.suhlyu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83>, 2017년 8월 25일 접속).

19) 정문기, 앞의 책, 345쪽.

20) 정문기, 앞의 책, 259~260쪽.



현재까지 확인된 ‘明太’의 한자 표기 기록은 1652년에 작성된 『승정원일기』에<sup>21)</sup> 처음 보인다. 이후 국가기록문서에 공식 명칭으로 등장하게 된다. 조선 초기에는 명 태조 주원장의 묘호인 ‘명 태조(明太祖)’를 연상케 하는 ‘명태(明太)’라는 명칭을 쓸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1644년 명조 멸망으로 인해 1652년에 ‘명태’라는 한자표기가 처음 사용된 것으로 이해된다.<sup>22)</sup>

명태라는 명칭과 관련된 설화는 조재삼(趙在三, ?~?)의 『송남잡지』와李裕元(1814~1888)의 『임하필기』에 기록되어 있다.

명천에 태씨 성을 가진 사람이 낚시를 하다가 처음으로 북어를 잡았는데 크고 살찌고 맛있어 명태라고 이름 하였다. 겨울에 잡으면 동태요, 봄에 잡으면 춘태요, 그 알은 명란이라고 한다.<sup>23)</sup>(밑줄 필자)

명천(明川)에 사는 어부(漁父) 중에 태씨(太氏) 성을 가진 자가 있었다. 어느 날 낚시로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아 고을 관청의 주방(廚房) 일을 보는 아전으로 하여금 도백(道伯)에게 드리게 하였다. 도백이 이를 매우 맛있게 여겨 물고기의 이름을 물었으나 아무도 알지 못하고 단지 “태 어부(太漁父)가 잡은 것이다.”라고만 대답하였다. 이에 도백이 말하기를, “명천의 태씨가 잡았으니, 명태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이 물고기가 해마다 수천 석씩 잡혀 팔도에 두루 퍼지게 되었는데, 북어(北魚)라고 불렀다. 노봉(老峯) 민정중(閔鼎重)이 말하기를, “300년 뒤에는 이 고기가 지금보다 귀해질 것이다.” 하였는데, 이제 그 말이 들어맞은 셈이다. 내가 원산(元山)을 지나다가 이 물고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오강(五江) 지금의 漢江 일대를 말함에 쌓인 뿔나무처럼 많아서 그 수효를 헤아릴 수 없었다.<sup>24)</sup>(밑줄 필자)

21) 『承政院日記』, 孝宗 三年 九月 十日(戊寅), “사용원 관원이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강원도에서 궁궐에 올릴 진상품 가운데 연어알젓을 대구알젓으로 대답하라고 선장(膳狀)에 써놓았는데 명태알(明太卵)을 보내어 일이 혼란스럽습니다. …<후략>…”, “司饗院官員, 以都提調意啓曰, 江原道各殿進上中, 鱈魚卵醢, 代以大口卵醢, 膳狀中書填, 而以明太卵來納, 事極可駭 …<後略>…”

22) 김양섭, 앞의 논문, 20~21쪽.

23) 『松南雜識』, 魚鳥類, “【北魚明太】 …<前略>… 明川 太姓人釣 始得北魚 大而肥美 故名明太. 冬捉則冬太 春捉則春太 其卵謂明卵…<후략>…”.

24) 『林下筆記』 卷二十七, “【明太】 明川漁父有太姓者. 釣一魚使廚吏供道伯. 道伯甚味之. 問其名皆不知. 但道太漁父所得. 道伯曰. 名為明太可也. 自是此魚歲得屢千. 石遍滿八路. 呼爲北魚. 閔老峰之言. 三百年後. 此魚當貴于今. 其言預驗. 余過元山. 見魚

명천(明川) 고을에 사는 태씨 성을 가진 어부가 잡은 고기라는 의미에서 어부의 성을 따 고기 이름을 붙였다는 내용이다. 명천은 광복 당시 함경북도 동남부에 있었던 군(郡)으로, 갈마포(葛麻浦)·하평(荷坪)·황암진(黃巖津) 등지에서 명태, 대구, 고등어 등을 어획하였다. 명태가 한류성 물고기로 경상북도 이북의 동해안에 널리 분포하며, 함경남도 연안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것<sup>25)</sup>을 감안하면 물고기의 특성을 반영한 설화라고 할 수 있다.

명태는 ‘북어’, ‘춘태’, ‘동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데, 그만큼 명태가 많이 잡히고 다양한 형태로 상품화 되어 소비되었음을 방증(傍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 정조 때 학자 이만영(李晩永, ?~?)이 쓴 『재물보』에는 “북해에서 나므로 ‘북어’라 한다.”<sup>26)</sup>는 기록이 있고, 『난호어목지』에는 “생것을 ‘명태’, 건조한 것을 ‘북어’라 한다.”<sup>27)</sup>고 되어 있다. 李圭景(1788~1856)은 『오주연문장전산고』 <북어변증설>에서 “이름은 북어이고, 민간에서 명태라고 부른다. 봄에 잡히는 것은 춘태(春太)라고 일컫고, 겨울에 잡는 것은 동태(凍太)라고 일컫는다. 동짓달에 시장에 나오는 것은 동명태(凍明太)라고 부른다”<sup>28)</sup>고 하였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여항의 가난한 백성들은 신령에게 제사를 모실 때 말린 것으로 중요한 제수로 삼는다. 가난한 선비의 집에서도 제사 때 올려야 하는 각종 고기 제물을 이것으로 대신한다. 그러니 값은 싼데 비해 귀하게 쓰인다”<sup>29)</sup>고 하면서 명태가 각종 의례에 제수(祭羞)로 사용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김양섭은 “명태의 간에서 얻은 기름으로 어둠을 밝히고, 생사를 수없이 반복하는 까닭에 환생하는 마닷물고기로 인식되기 때문에 각종 고사나 제사에 올리는 제물(祭物)이 될 수 있었다”<sup>30)</sup>고 보고 있다.

이상의 이야기들은 이름 없는 물고기에 이름을 붙여주는 과정을 설명하고

積如五江之峙柴. 不計其數.”

25) 한국국성문화연구원, <명천군>, <명태>, 『한국민족대백과사전』, 내용 참조.

26) 『才物譜』, 卷之七, “【北魚】 出北海 名북어”.

27) 『蘭湖漁牧志』, 魚名攷, 海魚, “【明鮐魚】 俗出呼關生者爲北 명티 乾者爲 북어”.

28) 『五洲衍文長箋散稿』, 萬物篇, 蟲魚類, 魚, 「北魚辨證說」, “其名曰北魚. 俗其稱則明太. 春漁曰春太. 冬捉曰冬太. 以至月登諸市曰凍明太”.

29) 『五洲衍文長箋散稿』, 萬物篇, 蟲魚類, 魚, 「北魚辨證說」, “而閭巷細民 以此爲脯脩享神 儒家貧匱 亦充籩豆 物賤用貴者也”.

30) 김양섭, 앞의 논문, 26쪽.

있다. 여기에는 물고기가 잘 잡히는 지역과 물고기와 관련된 특정 인물(A)이 등장한다. 특정 인물(A)은 이름 없는 물고기를 잘 잡거나 혹은 요리를 해서 시중을 드는 사람으로 표현된다. 그리하여 인물(B)에 의해 인물(A)과 연관된 이름이 물고기 이름으로 붙여지게 된다. 즉 특정 인물(A)의 이름에서 물고기의 이름이 유래된 셈이다. 이 이야기들을 도식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31)</sup>

내용 이름	궁(窮)		변(變)		통(通)	
	지역	내용	인물(A)	내용	인물(B)	내용
임연수어	함경도	이름 없는 물고기	임연수	고기를 잘 잡음	지역민	임연수어라 명명
균평선이	전라도 여수	이름 없는 물고기	평선이	식사 시중	이순신	평선이라 명명
명태	함경도 명천	이름 없는 물고기	태씨	고기를 잡음	도백(道伯)	명태라고 명명

## 2. 특정 인물의 사건과 관련된 이명(異名)

앞에서 특정 인물의 이름이 물고기의 이름으로 붙여진 것들을 살펴보았다면, 여기에서는 특정 인물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본래의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을 얻게 된 유래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 (1) 목어 : 은어(도로목)

‘아무 소득이 없는 헛된 일이나 헛수고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말짱 도루묵’이란 관용구가 있다. 관련 설화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관용구인데, 물고기 이름이 실생활과 연결되면서 이름만은 잘 알려져 있는 물고기이다.

도루묵은 ‘도루묵이’, ‘도루매이’, ‘은어(銀魚; 함경도)’, ‘도루묵[還麥魚; 경기도]’, ‘도루맥이(함남)’ 등으로 불리는데, 우리나라 동해 연안 중북이북 지역

31) “궁변통(窮變通)은 변화율에 근거한 동양의 변증법이다. ... 『주역』에 ‘역의 원리는 막히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결국 통하게 되면 오래 간다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역(易)과 변(變)은 같은 뜻이다. 동양철학의 종주로서의 『역(易)』은 결국 변화를 설명하는 묶음인 셈이다”(나경수, 『광주칠석동고싸움놀이의 문화적 표상과 가치』, 『남도민속연구』 23, 남도민속학회, 2011, 38~39쪽).

에서 많이 잡히는 고기이다. 평상시에는 150m 내외의 모래 진흙지대에 살다가 산란기(11월~12월)가 되면 해초가 많은 물 깊이 1m 내외의 연안에 몰려와 알을 낳고, 먼 바다로 나간다.<sup>32)</sup>

고려왕과 관련된 도루묵의 이름 유래는 李義鳳(1733~1801)이 쓴 『고금석림』에 다음과 같은 설화로 전한다.

환목(還木). 고려(高麗) 도로묵. 고려왕이 동쪽으로 파천하여 이 물고기를 먹었더니 맛이 좋아 그 이름을 묻기에 ‘목어(木魚)’라고 아뢰니 이름을 고쳐 ‘은어(銀魚)’라고 불렀다. 환궁하여 그것을 먹었더니 맛이 없기에 이름을 도로 ‘목어(木魚)’라 불렀다. 이러한 까닭으로 도로묵이라 칭한다.<sup>33)</sup>(밑줄 필자)

이 기록에 따르면 도루묵의 본래 이름은 ‘목어(木魚)’였다. 임금이 난(亂)중에 맛을 보고 ‘목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에는 아까웠는지 ‘은어(銀魚)’라는 이름을 하사(下賜)한다. 그러다가 환궁(還宮)하여 ‘은어’를 맛보았는데,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맛있게 먹었던 맛이 아니기에 ‘은어’라는 이름 대신 다시 ‘목어’로 바꾸도록 하였다. 즉 ‘목어’가 ‘은어’가 되었다가 다시 ‘목어’가 된 셈이다. 이때 ‘먼저와 다름없이. 또는 본래의 상태대로’를 뜻하는 부사 ‘도로’가 이름 앞에 붙어 ‘도로목어’가 되었고, 이후 ‘도루묵이’, ‘도루맥이’ 등의 이름을 갖게 된 셈이다.

도루묵을 은어(銀魚)로 하는 것은 “배와 옆구리에 운모가루를 발라 놓은 듯 빛나며 희어서 토박이들이 ‘은어’라고 부른다.”<sup>34)</sup>고 『난호어목지』에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도루묵의 원래 이름인 ‘목어’ 대신 ‘은어’라는 이름이 강조되는 이야기도 전한다.

“조사자 그 도루묵 유래 아시죠? 말씀해 보세요.”

“옛날에 아마 선조 임금인가 봐. 000한테 피난을 가다가 어디 함경도 쪽 어디 가까운 쪽으로 갔던가봐. 그래서 이제 뭐 참 집을 떠나서 마 쫓겨 가는 판이니까 어떤

32) 정문기, 앞의 책, 376쪽.

33) 『古今釋林』, 東韓譯語, 二字類, 還木, “【還木】 高麗 도로묵. 麗王東遷食此魚而甘 問其名則曰木曰 更名銀魚. 還都後食而不甘 還名曰木 故仍稱還木”.

34) 『蘭湖漁牧志』, 魚名攷, 海魚, “銀魚【도로묵】 …<前略>… 腹肚光白如傅雲母粉 土人呼爲銀魚 …<後略>…”.

음식인들 맛이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 또 도루묵이 거기 아주 그 담백하고 시원하잖아요? 이 000 끓여 놓으면은.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은어라 은어. 원래 표준어가 은어입니다, 은어. 은어.”

“(조사자) 언어예요? 은어?”

“은, 은, 은자”

“(조사자) 은자”

“은자. 은어. 말 그대로 은, 은. 은인데, 그이 뭐 인제 피난 생활하고 다시 인제 궁에 돌아 와가지고 그걸 먹으니가 그 때 맛이 안 나더란 얘기야. 그래서 임금이 이거 도루 물러라. 도루묵. 그래서 말짱 도루묵이라는 유래가. 그거 사실인거 같아요.”

위의 것은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에서 2010년에 채집된 도루묵 관련 설화이다.<sup>35)</sup> 이 설화에서는 ‘은어’라는 이름과 ‘도루묵’이라는 이름만 나올 뿐 ‘목어’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다. 즉, ‘은어’라는 이름이 ‘도루묵’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원래의 이름인 ‘목어’는 설화에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이미 행한 일을 그 전의 상태로 돌리다’라는 의미의 사동사 ‘무르다’에 관심을 두어 ‘도로 무르다’가 ‘도루묵’으로 변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목어’라는 본래의 이름보다는 이름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린 사건에 관심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위의 두 기록에서 강조되는 것은 ‘고려왕(혹은 선조)이 어려운 시절에 맞본 물고기의 이름을 지어주었다가 어려운 시절이 끝나자 본디 이름으로 되돌렸다’는 것이다. ‘어려운 시절’ 혹은 ‘궁핍한 시기’로 이야기 되는 사건이 특정 물고기의 이름을 하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어려움 혹은 궁핍이 해소되면서 하사한 이름을 거두고 본래의 이름을 사용하게 한 것이다. 즉 특정 인물이 겪은 사건에 의해 본디 있었던 물고기의 이름에 새로운 이름(異名)이 생겨난 것임을 알 수 있다.

## (2) 을문이 : 효자 (물)고기

을문이 고기는 우리나라 여러 하천 및 호수에 분포하는 민물고기로 공식 명칭은 ‘밀어(密魚)’다. 비교적 물이 맑고 바닥에 자갈이나 모래가 깔려 있는

35) “은어가 도루묵으로 불리는 사연”, 『한국구비문학대계』([http://gubi.aks.ac.kr/web/VolView2.asp?datacode=03\\_01\\_FOT\\_20100207\\_KDH\\_DHS\\_0002&dbkind=2&highlight=도루묵](http://gubi.aks.ac.kr/web/VolView2.asp?datacode=03_01_FOT_20100207_KDH_DHS_0002&dbkind=2&highlight=도루묵), 2017년 8월 25일 접속).

곳에서 살며, 돌 밑에 잘 숨고, 강 하구의 기수 구역에서도 흔히 보인다. ‘밀어(경기)’, ‘갈통이(평북)’, ‘통거니(평북)’, ‘얼문, 을문어(乙文魚: 충남 논산)’ 등으로 불린다.<sup>36)</sup>

밀어에 관한 기록은 『난호어목지』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麩魚【밀어】** 밀어 또한 한강 상류에서 산출된다. 밀알처럼 잘기 때문에 내어(麩魚)라고 이름이 붙었다. 래(麩)는 소밀(小麥)이다. 밀어는 초여름에 나타나는데, 물가에 사는 사람들은 삼베이불을 그물삼아 물가에 펴서 잡는다. …<중략>… 속칭 밀어(密魚)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방언으로, 밀의 이삭이 뽕뽕하게 붙은 것처럼 밀어떼가 이동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sup>37)</sup> (말줄 필자)

밀알처럼 작기 때문에 ‘내어(麩魚)’라고 부르고, 밀의 이삭처럼 뽕뽕하게 붙어서 이동하기에 ‘밀어(密魚)’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밀어를 ‘을문이 고기’라고 부르는 충남지역에는 ‘강웅정’이라는 효자와 관련된 설화가 전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조 중엽 가야곡면 산노리에 지체 높은 첨지중추 부사의 의(毅)의 둘째 아들 강웅정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마저 죽자 홀어머니를 모시고 극진히 봉양하였다. …<중략>… 또 어느 겨울이었다. 어머니는 웅정에게 “야야, 을문이 고기가 먹고 싶구나” 하였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고기를 이 엄동설한에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고자 하는 일념에서 마당에 소반을 갖다 놓고 그 위에 청수를 떠다 놓고서는 정성을 다하여 빌었다. “하느님, 저의 어머니께서는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을문이 고기를 잡우시고 싶습니다. 저에게 을문이 고기를 내려 주십시오” 하면서 얼마 동안을 빌고 있으려니까 갑자기 검은 구름이 일더니 소나기와 함께 물고기 한마리가 떨어져 내렸다. 웅정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인천리 냇가에 나가 고기의 배를 가르고 내장과 함께 알을 냇가에 버렸다. 그 후 그 알이 부화되어 지금도 을문이 고기는 인천리 냇가에서부터 논산 저수지 사이 5.6km 안에서만 볼 수 있다 하며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그 고기를 “강효자 고기”라고도 부르고 있다. …<후략>…<sup>38)</sup>

36) 정문기, 앞의 책, 477쪽.

37) 『蘭湖漁牧志』, 魚名攷, 江魚, “麩魚【밀어】 又產漢水上流 細如麩粒 故以名 麩小麥也 其出以初夏 濱水居人 以布衾張于水濱 罩取之 …<中略>… 俗呼爲密魚 方言呼小麥爲密也”.

위의 이야기는 을문이라는 물고기 이름과 강웅정이라는 효자의 일화가 만나 ‘효자(물)고기’라는 이명(異名)을 얻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이 설화의 중요 내용은 강웅정이라는 인물의 효행이다. 그런데 이 효행담의 증거물로 제시되고 있는 물고기가 바로 을문이 고기이다. 즉, 을문이 고기를 먹고 싶다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를 올렸고, 이에 물고기 한 마리가 하늘에서 떨어진다. 즉 효자의 간절함에 하늘에서 보내준 물고기인 셈이다.

설화의 내용대로라면 을문이 고기는 단순한 민물고기의 한 종류가 아니라 효자를 위해 하늘이 내려준 고기라는 의미를 가진 물고기가 된다. 더군다나 효자는 하늘이 내린 물고기를 마을 앞 냇가에서 손질하는데, 이 때 버린 물고기 알이 부화하여 마을 앞 냇가에서만 서식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을 지켜 본 마을 사람들은 ‘을문이 고기’에 강웅정이 겪은 사건, 그리고 자기마을 냇가에 서식하는 고기라는 의미를 더해 ‘효자(물)고기’라는 또 다른 이름을 붙여준 것이다.

### (3) 조기 : 굴비

앞에서 살펴본 ‘도루묵’이나 ‘효자(물)고기’ 이야기는 본래 이름이 있던 물고기에 특정 사건이 더해지면서 또 다른 이름이 생겨난 것들이다. 이에 비해 조기와 굴비 이야기는 앞의 두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내용의 것이다. 앞의 두 물고기는 특정 물고기에 사건이 더해지면서 다른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면, 조기와 굴비는 특정 물고기의 가공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즉 날 생선과 건조 생선을 상호 구별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라는 의미이다. 조기는 특정 물고기의 이름이고, 이를 말린 것을 ‘굴비’라고 불러 서로 구별한다. 이는 청어나 콩치를 그늘에 말려 과메기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다만, 이름이 붙게 된 유래가 자세히 전하고 있고, 지역민들도 이를 사실(事實)로 받아들이고 있기에 여기에서 다루고자 한다.

조기는 우리나라 서남해 일대에 서식하는 어종으로, 수심이 40~100m인 근해의 모래진흙 바닥에 서식한다. 산란기는 5~8월인데, 곡우(穀雨)를 전후하여 떼를 지어 남쪽에서 서쪽으로 회유한다. 참조기, 수조기, 흑조기 등이

38) 논산문화원 編, 『논뢰(論山)의 傳說』, “효심의 물고기 을문이(가야곡면 산노리)”, 1988, 69~71쪽.

있는데, 일반적으로 참조기를 조기라 칭한다. ‘참조기’, ‘투망조기’, ‘곡우살조기’, ‘황석어’, ‘석수어’ 등으로 부르며, 어획하여 생선, 굴비 및 젓갈 등으로 소비되는데, 굴비 중에는 초봄(곡우)에 잡아 말린 전남 영광 굴비가 제일 굵고 맛이 좋다.<sup>39)</sup> 조기는 ‘석수어(石首魚)’라고 기록하는데, 『난호어목지』에는 한글로 ‘조기’라 쓰면서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석수어(石首魚) 【조기】 몸이 납작하고 비늘이 잘다. 등마루가 얇은 검은색이며 몸 전체가 누른빛 도는 흰색인데 윤기가 난다. 머리에 흰 돌이 2개가 있는데 옥처럼 반짝인다. …<중략>… 동해에서는 나지 않고 오직 서해와 남해에서만 난다. 곡우 전후에 무리를 이루고 떼를 지어 남해에서 서쪽으로 빙 돌아 올라온다. 때문에 조기 잡이는 호남의 칠산에서 시작해서 황해도의 연평도 바다에서 왕성하며 관서의 덕도 앞 먼 바다에서 끝난다. 이곳을 지나면 중국 등래의 바다로 들어간다.…<후략>…<sup>40)</sup>

위의 기록을 보면 ‘석수어’라는 명칭이 ‘머리에 돌이 두 개가 들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곡우를 전후해 이동을 시작하는 조기의 습성과 조기잡이의 시작이 영광 칠산 바다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굴비의 이름 유래에 관한 설화가 영광지역에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유명한 영광굴비. 이자점으로 인해서 영광굴비가 유명해졌다는 것을 이야기로 말해줄게. 원래 서해안에서 추자도에서 우리 봄 되면은 임자도로 북상하는 조기가 오는 과정에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여기 서해안이 물이 좋고, 알이 배는, 알 배어 가지고 푸는 그런 바다가 물이 좋다 그것이야. 여기서 머물면서 여 가는데 칠산어장으로 해서 범성포가 수산업으로 다른 데 보다 유일하게 유명해. 그래서 이자점이가 척신으로 맞아가지고 범성포로 유배될 당시에 밥상 우에(위에) 올라오는 조기가 황금조기로서 누래서 알이 배졌는디, 먹어보니 맛이 좋거든. 그래서 그것을 말려가지고 굴비로 만들어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인조대왕한테 올라갔어. 그래서 왕한테 진상을 허니까 왕께서 보고, “이것이 무슨 고기냐.” 고긴 줄 여태 모르고 먹어보고 맛이

39) 정문기, 앞의 책, 348~353쪽.

40) 『蘭湖漁牧志』, 魚名攷, 海魚, “石首魚 【조기】 身扁鱗細 脊淡黑 通身黃白滋潤 首有白石二枚 瑩潔如玉 …<中略>… 我東東海無之 惟產西南海 穀雨前後 成羣作隊 自南迤西 故其漁之也 始自湖南之七山 盛于海西之延平海 終于關西之德島前洋 …<後略>…”



좋고 해서. “나라님한테 거시기 진상해서 잡사보시라고 가져왔다”고. 이름을 모르니까. 이름을 지어 달라고, 명명해 달라고. 인조대왕께서 보고. 이 황금조기가 머리에 다이아몬드가 들어 있고 속에가 골이 들어 있어서 뼈다구(뼈다귀) 같은 골이 들어 있어서 독(돌) 같이 배겨 있어서 석수어(石首魚)라 하자. 돌 석자, 머리 수자, 또 석두어(石頭魚)라 하자. 돌 석자, 머리두자. 그렇게 해서 이름을 명명해서 지어가지고 받아가지고 내려왔어, 이자겸이가. 그때부터서 조기가 말려서 굴비로 변한다, 이름이 이자겸이가 어쭙고 꾀꾀하던지, 녀 한테 굴비지를 얹아. 누구한테도. 자기 혼자 주장이지 절대 굴하지 않아. 그래서 굴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굴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굴을 거꾸로 굴비라고 이름을 지어서 오늘날 우리영광에서는 유명한 굴비골이라고 하고, 우명해지지 않았는가? 그때부터서.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금 굴비로 인해서 법성단오제가 자연스럽게 생겼고 난장도 트고 모든 풍월객이든지 뒤이든지 모여서 행사도 진행되지 않았지 않았나. 이자겸 굴비 이야기로 해서 전설적으로 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봤어.<sup>41)</sup>

위의 이야기는 ‘굴비’라는 명칭의 유래와 ‘석수어’라는 명칭 유래를 동시에 설명하고 있다. 이야기에 따르면 이자겸이 영광으로 유배되어 왔을 때 조기를 말린 것을 굴비라고 불렀다. 이때 굴비는 ‘자신이 비굴하지 않게 살았다’는 의미로 ‘비굴(卑屈)’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해 ‘굴비’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한다. 이와 함께 굴비를 임금에게 진상하였더니 ‘머리에 돌이 있는 고기’란 의미로 ‘석수어’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는 내용도 있다. 즉, ‘석수어’와 ‘굴비’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된 유래를 이자겸이라는 인물과 이자겸이 임금께 진상한 내용 등을 엮어 설명하고 있는 셈이다.

이상의 이야기들은 본래 이름이 있었던 물고기에 또 다른 이름이 붙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 과정에는 물고기와 관련된 인물과 그 인물이 처한 상황이 제시된다. 그러면서 물고기와 관련된 사건(A)과 사건(B)가 나열되고 이에 따라 기존 물고기 이름에 새로운 이름이 붙는 과정이 설명된다. 즉 특정 인물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본래의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을 얻게 된 셈이다. 이 이야기들을 도식해 보면 다음과 같다.

41) 영광문화원, ‘영광굴비 이야기’, 『영광의 설화』, 2016, 491~492쪽.

내용 이름	궁(窮)		변(變)		통(通)	
	인물	내용	사건(A)	내용	사건(B)	내용
목어	고려왕	동쪽으로 파천(播遷)	목어를 맛있게 먹음	‘은어’라는 새로운 이름 하사	환궁하여 다시 먹으니 맛이 없음	왕이 도로 ‘목어’라 부름
을문이 고기	강응정	어머니 병환	을문이란 고기를 먹고 싶어함	하늘에서 고기를 내려줌	부화한 고기가 인근 지역에 서식	사람들이 ‘효자(효)고기’라 부름
조기 (굴비)	이자겸	영광으로 유배	굴비를 입금계 진상	석수어라는 이름을 하사	남에게 굴하지 않음	조기 말린 것을 비굴을 뒤집어 굴비라 칭함

### Ⅲ. 물고기 이름에 내포된 의미

지금까지 인물과 관련 있는 물고기 이름 유래담 여섯 편을 살펴보았다. 특정 인물의 성씨나 이름에서 물고기의 이름이 유래된 ‘임연수어’, ‘균평선이’, ‘멩태’와 함께 특정 인물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본래의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을 얻게 된 ‘도루묵’, ‘을문이고기’, ‘조기(굴비)’의 유래담이 그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여섯 편의 물고기 이름 유래담에 내포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지역을 강조하여 토속성 부각

물고기 이름 유래담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물고기 이름을 붙이게 된 과정이기도 하지만, 물고기와 관련된 특정 지역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 가) 임연수어(林延壽魚) 【임연슈어】 **관북**의 먼 바다에서 난다.
- 나)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직전 전라좌수사로 **여수**에 부임했을 때다.
- 다) (함북) **명천(明川)**에 사는 어부(漁父) 중에 태씨(太氏) 성을 가진 자가 있었다.
- 라) 옛날에 아마 선조 임금인가 봐. 000한테 피난을 가다가 어디 **함경도** 쪽 어디 가까운 쪽으로 갔던가봐.
- 마) (충남 논산) **가야곡면 산노리**에 지체 높은 침지중추 부사의 의(毅)의 둘째 아들 강응정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다.

바) 이자겸이가 척신으로 맞아가지고 **법성포**로 유배될 당시에 밥상 우에(위에) 올라오는 조기가 황금조기로서 누래서 알이 배겼는디, 먹어보니 맛이 좋거든.

위에서 보듯이 특정 물고기는 특정 지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는 명태처럼 물고기가 산출되는 지리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특산품 혹은 토속품(음식)을 강조하는 의미로 지역이 강조되고 있다. ‘을문이 고기’처럼 특정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물고기도 있고, 굴비처럼 법성포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최고인 것<sup>42)</sup>으로 이야기되는 물고기도 있다. 또한 ‘군평선이’처럼 여수에서 잡히는 것이 제일 맛있다고 알려진 물고기도 있다. 이들은 여러 지역에서 산출되는 물고기들이지만, 특정 지역이 강조되거나 강조함으로써 그 지역의 특산품 혹은 토속품(음식)으로 인식되거나 인식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전하는 설화도 있다.

은어환목(銀魚還木) 소위 ‘도로목어’라고 한다. 우리 인조께서 남쪽으로 공주를 순행하실 때 ‘목어’를 수라상 위에 올렸는데, 매우 맛있어 ‘은어’라고 이름을 바꾸게 하셨다. 임금께서 궁으로 돌아오시고 나서 다시 진상하였는데 매우 맛이 좋지 않아 명을 내려 도로‘목어’라고 하게 하시니, 이 때문에 지금 ‘도루목’이라고 이름 한다.<sup>43)</sup>

위의 설화는 1624년 이괄(李适)의 반란 때 인조가 공주로 10일간(음력 2월 8일~18일) 파천한 사실을 대입시켜 ‘도루목’과 관련된 내용이 공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실제 도루목은 동해 중부 이북에 서식<sup>44)</sup>하기 때문에 공주에서는 잡을 수 없는 고기이다. 그러함에도 ‘도루목’ 관련 설화를 공주에서 일어난 것처럼 말한 것은 인조가 다녀간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공주라는 지역을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하면 설화를 구연하

42) “...<전략>... 그리고 石首魚를 鹽으로 干하여 乾燥하면 ‘굴비’라고하하니 이 이른바 靈光法聖浦 굴비로서 일찍히 朝鮮의 名産으로 著名한 者이다...<후략>...”, ‘巡迴探訪(三百八) 百四十八의 島嶼로 爲群’(『동아일보』, 1927년 05월 06일 5면 기사.)

43) 『松南雜識』, 魚鳥類, “【銀魚還木】俗謂都路木魚. 我仁祖南巡公山 木魚登水刺上甚珍之改名銀魚 駕返更進甚不珍之命還爲木魚 故今名還木魚.”

44) ‘도루목’, 『국립생물자원관』([https://species.nibr.go.kr/home/mainHome.do?cont\\_link=009&subMenu=009002&contCd=009002&ktsn=120000058878](https://species.nibr.go.kr/home/mainHome.do?cont_link=009&subMenu=009002&contCd=009002&ktsn=120000058878), 2017년 8월 25일 접속).

고 전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설화의 진실성 여부 보다는 지역을 강조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물고기 이름 유래와 관련된 이야기는 지명을 강조하고자 하는 구연자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을 강조하기 위해 지역과 연관된 인물을 내세우고 있다. 관련 인물의 이름으로 물고기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특정 인물이 관련된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인물을 내세움으로써 물고기 이름 유래담이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특정 물고기가 특정 지역의 특산품이나 토속 음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은연중에 드러내 놓고 있다.

## 2. 이명(異名)을 통한 의미화 시도

물고기 이름 유래담에는 이름이 없던 물고기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준 것도 있지만, 본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 즉, 이명(異名)이 붙는 것도 있다.

- 가) 여수에서는 굴비보다 더 값지게 치고, 우스갯소리로 일명 ‘셋서방 고기’라고 부르는데, 본 남편에게는 아까워서 안 주고 셋서방에게만 몰래 치려준다는 의미를 가진 고기이다. 따라서 이 지방에선 균형선이만 잘 먹어도 제대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된다.<sup>45)</sup>
- 나) 그이 뭐 인제 피난 생활하고 다시 인제 궁에 돌아와가지고 그걸 먹으니깐 그때 맛이 안 나더란 얘기야. 그래서 임금이 이거 도루 물려라. 도루묵. 그래서 말짱 도루묵이라는 유래가. 그거 사실인거 같아요.
- 다) 그 후 그 알이 부화되어 지금도 을문이 고기는 인천리 냇가에서 부터 논산 저수지 사이 5.6km 안에서만 볼 수 있다 하며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그 고기를 “강효자 고기”라고도 부르고 있다.

‘균평선이’의 다른 이름은 ‘셋서방 고기’이다. ‘너무 맛있는 물고기’라는 의미를 우회적으로 담았다. ‘도루묵’은 어려운 시절에 먹었던 물고기의 맛과 편안할 때 먹는 물고기의 맛이 다름을 통해 ‘간사한 사람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을문이 고기’는 강웅정이라는 사람의 효도 이야기와

45) 전도근, ‘아끼는 사람에게만 주는 금풍생이 구이’, 『원더풀 여수 미래를 창조하다』, 무한, 2008, 218~219쪽.

겹쳐지면서 사람들의 ‘어머님을 위해 효자가 잡은 고기’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특정 물고기가 특정 사건을 만나 의미 있는 이름이 새로 생겨난 셈이다.

특정한 작가에 의해 창작된 텍스트가 아닌, 전승집단에 의해 생성되고 소통되어 온 설화는 오늘날의 일반적인 서사 텍스트보다 훨씬 더 풍부한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집단의 문화적 기억 물로 구전설화는 이야기 전승집단의 삶의 방식과 사유 체계를 엿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텍스트라 할 수 있다.<sup>46)</sup> 따라서 물고기 이름 유래담에는 설화 전승집단의 문화적 의미가 담겨 있게 마련이다. 즉, 기존 이름에 문화적 의미가 더해져 새로운 이름이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화는 많은 시간과 인식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 가) “...<전략>... 그런데 굴비라는 명사가 어느 때 어대서 명명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굴비는 조기(石首魚)를 말린 것인마 년산 七八十만원으로 전남수산업 중에서도 중요한 산물의 하나이라고 한다 ...<후략>...”<sup>47)</sup>(띄어쓰기, 밑줄-필자)
- 나) “...<전략>... 李資謙은 귀양살이 도중 영광굴비의 별미를 알고 왕에게 진상 하기까지 했으며 이때부터 영광굴비는 진상품으로 「石魚」라는 이름과 함께 오늘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후략>...”<sup>48)</sup>(띄어쓰기, 밑줄-필자)
- 다) “...<전략>... 고려 인종 때 威臣 李資謙이 역적으로 몰려 靈光에 귀양살이를 하면서도 비굴하지 않다는 뜻을 담아 仁宗에게 진공하면서 「非屈」을 거꾸로 「굴비」라 하였다 한다 ...<후략>...”<sup>49)</sup>(띄어쓰기, 밑줄-필자)

위의 예는 ‘굴비’라는 명칭이 신문에 기록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설화 채록 가능성에 관한 문제 등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위의 기록을 살펴본다면 ‘굴비’와 ‘이자점’, ‘비굴’, 그리고 ‘영광’이라는 지역의 의미화 과정을 볼 수 있다.

46) 오세정, 「한국 설화에 나타난 폭력의 형상화와 의미화에 관한 연구」, 『기호학연구』 38, 한국기호학회, 2014, 158쪽.

47) ‘聲價 있는 特産’, 『동아일보』, 1934년 01월 03일 7면 기사.

48) ‘新八道紀(90) 靈光’, 『동아일보』, 1978년 08월 22일 5면 기사.

49) ‘굴비와 돌김의 名產地 靈光’, 『동아일보』, 1984년 06월 08일 5면 기사.

음식문화는 다른 문화요소와 동일한 환경의 영향을 받고 상호 상관관계 속에서 형성 발전하면서 전체를 이루는 문화요소이다.<sup>50)</sup> 즉 음식은 단순히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생산, 유통, 요리 등의 다양한 문화 요소들이 복합된 문화복합체라는 것이다. 음식은 때로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 먹을 때가 있다. 특히나 전국적으로 널리 유통되고 알려지기 보다는 일정 지역 내에서 주로 먹었던 토속음식은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토속음식으로의 자리매김은 특정 지역의 생물기후학적인 조건과의 연계가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명성과 이미지를 바탕으로 구축된 연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sup>51)</sup>가 있다. 유래담에 등장하는 이명(異名)도 이러한 다양한 문화 현상들을 의미화(意味化)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생겨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 지역에서 산출되는 물고기가 특정 지역의 특산품으로 인식되기 위한 의미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또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화 되는 것이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특정 인물의 성씨나 이름에서 유래된 물고기들의 이름 유래담과 특정 인물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본래의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을 얻게 된 물고기 이름 유래담 여섯 편을 살펴보았다.

바닷물고기 이름들은 한자로 기록되어 전해져 왔는데, 한자는 한국어 표기에 적합한 문자가 아니기에 어원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 이름 유래에 관한 설화를 분석함으로써 이름 유래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진실성을 확신할 수는 없다. 다만, 설화가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전승되는 이유나 과정을 확인해 볼 수는 있다. 설화에는 이야기를 전승하는 전승집단의 철학적 사유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정 인물의 성씨나 이름에서 유래된 물고기 이름 유래담은 이름 없는 물

50) 박종오, 「토속음식의 상품화와 어민들의 대응-‘물메기’를 대상으로-, 『인문과학연구』 30,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174쪽.

51) 박정석, 「홍어와 지역정체성 : 흑산도·목포·영산포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32,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08, 179쪽.

고기에 이름을 붙여주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는 물고기가 잘 잡히는 지역과 물고기와 관련된 특정 인물(A)이 등장하게 되고, 이 인물의 이름에 근거하여 이름이 붙여진다. 특정 인물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본래의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을 얻게 된 유래담에서는 물고기와 관련된 인물과 그 인물이 처한 상황이 제시된다. 그러면서 물고기와 관련된 사건들이 나열되고, 기존 이름에 새로운 이름이 생겨나는 과정이 설명된다. 즉 특정 사건으로 인해 본래의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래담은 물고기 이름을 붙이게 된 과정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물고기와 관련된 특정 지역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는 명태처럼 물고기가 산출되는 지리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특산품 혹은 토속품(음식)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즉, 여러 지역에서 산출되는 물고기들이지만, 특정 지역이 강조되거나 특정 지역을 강조함으로써 그 지역의 특산품 혹은 토속품(음식)으로 인식되거나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본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 즉, 이명(異名)이 붙여줌으로써 의미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이는 특정 물고기가 인물과 관련 있는 특정 사건을 만나 의미 있는 이름이 새로 하나 생겨난 셈인데, 이 속에는 설화 전승집단의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여러 지역에서 산출되는 물고기가 특정 지역의 특산품으로 인식되기 위한 의미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또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화 되는 것이다.

인물과 관련된 물고기 이름 유래담은 ‘이름 없는 물고기’ + ‘특정 지역의 인물’ = ‘새로운 이름’이라는 도식과 함께 ‘이름 있는 물고기’ + ‘특정 사건(의미)’ = ‘또 다른 이름’이라는 도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의미’라는 복합적인 문화현상이 어우러지는 의미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이미지로 기억됨을 알 수 있다.

물고기 이름 유래담을 좀 더 명확히 고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설화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성질이 까마귀 먹기를 좋아해서 매번 물위에 떠 있다가 날아가던 까마귀가 그것을 보고 죽은 줄로 여겨 내려가 쪼면, 다리로 감아서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잡아먹기 때문에 오적어(烏賊魚)라고 한다”<sup>52)</sup>

52) 『蘭湖漁牧志』, 魚名攷, 海魚, ‘性喜食烏, 每自浮上, 飛鳥見之, 以爲死而啄之, 乃卷入

와 같이 인물과 관련 없는 유래담이나, “가자미는 전처 자식을 몹시 미워하던 계모가 죽어서 태어난 것으로서, 생전에 하도 전처 자식에게 눈을 흘긴 까닭에 그 죄로 눈이 한 쪽으로 물려 붙었다”<sup>53)</sup>는 물고기 내력담 등과의 비교가 그것이다.

본 글은 특정 인물과 관련 있는 물고기 이름 유래담을 살펴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설화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물고기 이름 유래담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외의 물고기 이름 유래담에 대한 분석은 추후 과제로 남긴다.

---

水食之, 故謂之烏賊\*.

53) ‘바다 50년을 투망하다⑭’, 『어업 in 수협』, 2012. 12. 06 기사.



## 참 고 문 헌

### 1. 사료

- 《新增東國輿地勝覽》  
《承政院日記》  
《輿地圖書》  
《才物譜》  
《古今釋林》  
《蘭湖漁牧志》  
《五洲衍文長箋散稿》  
《林下筆記》  
《松南雜識》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 2. 연구논저

- 김경혜, 「명태 명칭의 기원과 전파」, 『조선시대 해양환경과 명태』, 부경대학교해양문화연구소, 국학자료원, 2009.
- 김양섭, 「임연수어·도루묵·명태의 한자표기와 설화에 대한 고증」, 『民俗學研究』 38, 국립민속박물관, 2016.
- 나경수, 「광주칠석동고싸움놀이의 문화적 표상과 가치」, 『남도민속연구』 23, 남도민속학회, 2011.
- 노재민, 「물고기 이름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논산문화원, 『놀이(論山)의 傳說』, 1988.
- 박정석, 「홍어와 지역정체성 : 흑산도·목포·영산포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32,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2008.
- 박종오, 「토속음식의 상품화와 어민들의 대응-‘물메기’를 대상으로」, 『인문과학연구』 30,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 영광문화원, 『영광의 설화』, 2016.
- 오세정, 「한국 설화에 나타난 폭력의 형상화와 의미화에 관한 연구」, 『기호학연구』 38, 한국기호학회, 2014.

윤정옥, 「우리나라 물고기 이름의 형태·의미 구조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8.

이기문, 「한국어 어원 연구의 회고와 전망」, 『대한민국학술원논문집』, 47(1), 대한민국 학술원, 2008.

장태진, 「물고기 이름의 어휘 연구」, 『한글』 143, 한글학회, 1969.

전도근, 『윈더풀 여수 미래를 창조하다』, 무한, 2008.

정문기, 『韓國魚圖譜』, 일지사, 1977.

홍윤표, <‘가물치’와 ‘붕어’의 어원>, 《쉽표, 마침표》 12, 국립국어원, 2006년 9월.

### 3.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국립생물자원관》, <http://www.nibr.go.kr>.

《뉴스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

《어업 in 수협》, <http://www.suhyupnews.co.kr>.

《한국구비문학대계》, <http://gubi.aks.ac.kr>.

《SBSNEWS》, <http://news.sbs.co.kr/news/newsMain.do>.

## Abstract

# An Implied meaning in the fish name derivation tale

## -Focused on the related person derivation tale-

Park, Jong-O\*

Everything in the world has a name. Each of the sea fish has its name and It also has meaning. But Sea fish names have been written in Chinese writing. However, since Hanja is not a suitable character for Korean writing, it is very difficult to identify the root of Korean. By the way there is a story that shows the origin of the fish name.

In this Research, I looked at the name of the fish that came from the name of a certain person, and the name of the fish that got another name in addition to the original name due to events related to a specific person.

The name of the fish, derived from the surname or name of a particular person, describes the process of naming an unnamed fish. In this process, certain characters related to the fish-friendly area and fish appear, and the name of the fish is derived from the name of this person. In addition to the original name due to an incident related to a specific person, another name is given in the literature. The person related to the fish and the situation in which the person is present are presented. It then lists the events related to the fish and explains the process by which the new name comes into existence.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specific areas related to fish in these

---

\* Instructor of Mokpo National University.

derivation tale. This is because a specific area is emphasized or emphasized on a specific area, thereby recognizing or recognizing it as a local specialty or a local product (food). It also attempts to signify by giving it a name other than its original name. It contains the cultural meaning of tradition groups. In other words, fish from various regions are subjected to a semantic process to be recognized as a special food in a certain area. These things are imaged with another name.

Key Words : Fish name, derivation tale, specific person, Specific area, the process of making meaning.

**교신 : 박종오** 61035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로 41번길 39번  
(E-mail: kfolk@naver.com)

논문투고일 2017. 09. 13

심사완료일 2017. 10. 06

게재확정일 2017. 10. 07